

장수교육지원청, 학생과학발명품 전국대회 휩쓸어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허윤종)은 최근 실시한 제44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전북 대표로 장수군에서 중학생 1명, 초등학교 3명이 참여해 최우수상 1명, 특상 2명, 장려상 1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국립중앙과학관이 주관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지속적인 발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979년에 개최하여 올해로 44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발명품경진대회이다.

장수중학교 2학년 김은재 학생은 '미래의 잠정을 체중으로 극대화한 뽀아수레'를 발명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장수초등학교 6학년 채호림 학생은 '친환경 무한 블록 갈뿔이'를, 5학년 채예린 학생은 '한 개로 시간 조절, 멈춤, 리셋이 되는 만능 모래시계'를 발명하여 각각 특상을 수상했으며, 계북초등학교 6학년 김소윤 학생은 '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원터치 침수거기'를 발명해 장려상을 수상받았다.

학생들은 장수영재교육원 발명교실 수업과 미래창조과학부 메이커교육, 찾아가는 발명교실을 통해 생활 속에서 겪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발명 아이디어를 구안하고 작품으로 구체화해 과학적 탐구능력과 창의성을 인정받았다.

허윤종 교육장은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 교사와 창의적인 발명품을 제작하고 대회를 준비한 학생과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꿈을 키우는 학생 가르치는 기쁨 속에 성장하는 선생님, 신뢰와 협력으로 함께 하는 학부모님을 위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공립유치원 협의회장배 유아 축구대회 개최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이 주최하고 무주군 공립유치원 협의회(회장 오현욱)가 주관하는 2023 무주군 공립유치원 협의회장배 유아 축구대회가 지난 6일 도내 유아들을 대상으로 무주 등나무운동장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대회에 김승기 교육장을 비롯하여 전주 및 무주지역 유치원 원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3 무주군 공립유치원 협의회장배 유아 축구대회는 5:5 경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38명의 전북 유아들이 참여하여 그동안 유치원에서 갖고 있던 축구 실력을 선보였다.

반딧불축제 기간에 실시한 본 대회에는 유아, 지도교사, 학부모 등 총 40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해 더욱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반딧불과 태권도의 고장인 무주에서 전북의 유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개최해주어 고맙다"고 하며, "특히 모든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축구가 하나되는 모습이 좋았다"고 했다.

오현욱 무주군 공립유치원 협의회장은 "김승기 교육장을 비롯하여 아이들을지도해 주신 모든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김승기 교육장은 "유아들의 건강과 활기찬 무주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대한적십자 전북지사, 김제시에 추석맞이 물품기탁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가 7일 추석맞이 희망품자 물품 지원 일환으로 200만 원 상당의 지역특산식품 세트와 치킨교환권을 지역내 호우피해 주민에게 전달해 달라며 김제시에 기탁했다.

이번 후원물품은 지역특산물 3백미 3kg △잡곡 1kg △미역 100g △조파김 1팩(16개입) △건조표고버섯 100g 100세트와 외곽지역 교환권 800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해피해가 정 166세대 및 수해피해지역 139개 마을에 전달될 예정이다.

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은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지역특산물과 치킨을 맛있게 드시고 힘을 내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나눔 활동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후원물품은 관내 피해지역 주민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홀리클럽 목요 아침 기도회, 2학기 모임 이어가

전주대, 전북 기관장들과... 지역 사회 발전 위한 기도·말씀 나눔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07년부터 시작된 홀리클럽 목요 아침 기도회를 7일부터 2학기 모임을 이어 간다고 밝혔다.

홀리클럽은 전라북도 믿음의 기관장들이 정기적으로 매주 목요일 아침에 모여 기관과 전라북도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다.

홀리클럽에 참가하는 기관장들은 홀리클럽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박진배 총장을 비롯한 김동건(홀리클럽 지도 목사), 김문택(전주대 선교봉사처장), 김선경(전북 CBS 대표), 김성길(변호사), 김영민(CTS 호남본부장), 김진기(예수대 총장), 서거석(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신종식(예수병원 원장), 우병훈(전주비전대 총장), 이경(전북 극동방송 지사장), 이만수(전주대 선교지원실 실장), 이진호(전주대 특임교수), 이현순(전주YWCA 회장), 전봉관(홀리클럽 사무총장), 정 오(홀리클럽 홍보국장), 정순락(홀리클럽 명예 사무총장), 조숙진(전주보건복지협회 홍보 위원장), 채은하(한일장신대 총장), 최홍규(홀리클럽 재정국장), 한희영(기전여고 교장) 등이 있다.(가나다순)

이에 따르면 홀리클럽에서는 각 기관의 기도 제목과 전라북도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모임이 진행된다.



공통적인 기도 제목은 '전라북도 지역 안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전라북도 지역의 크리스천 리더들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 말씀의 실천으로 각 기관을 섬길 수 있도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박진배 총장은 "전라북도의 기관과 전라북도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고, 각 기관장은 기도를 통해 전라북도의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세워져 나가 는 지역이 되길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기도하는 기관장님들이 더욱 더 함께하길 소망하며, 2학기 모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자봉센터, 업사이클링 물품 전시회 진행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에서는 7일 제1회 김제 자연순환 새로보기 축제에 참여,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폐기구가 명품으로' 전시회를 진행했다.

이번 참여한 작은행복봉사단(회장 김정숙)은 올해 4월부터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버려진 가구 및 목재에 회원들이 직접 밑그림, 채색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치를 불어넣은 업사이클링 작품들로 전시회를 꾸렸다.

앞서 하는 세계여행이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업사이클링이 진행되는 과정을 관람객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관람객이 바라는 세상을 소원 나무에 적어볼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끌었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계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이번 전시회는 자연순환 새로보기 축제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업사이클링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폐기구가 명품으로'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의 시·군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폐기구가 명품으로'는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의 시·군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수원 무주양수발전소, 반딧불 축제장서 청렴 캠페인 전개

한국수력원자력 무주양수발전소(소장 조수남)는 무주 반딧불 축제에 맞아 지난 6일 한풍루 일원에서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수남 소장과 직원들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널리 알려진 반딧불 축제에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 기념품과 함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홍보 리플렛을 나눠주며 청렴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무주양수발전소 직원들은 청렴캠페인 실시 후 행사장 내에 설치된 부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물을 즐기며 청렴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조수남 소장은 "지역사회와 행복한 동행을 위해서 청렴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무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 전체에 청렴 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무주양수발전소가 앞장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무주양수발전소 직원들은 청렴 캠페인이 끝난 후 지역주민과 축제방문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한풍루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대 건축학과, 일본 토요대와 합동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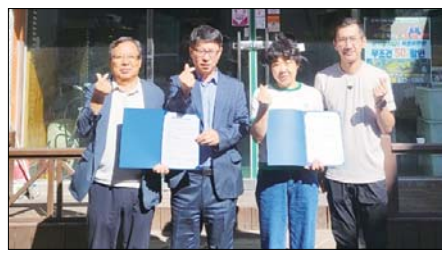
전주대학교 건축학과는 4~7일 4일간 일본 토요대학교와 공동으로 전주시 원도심 지역 빈집 활용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 주제는 '전주 노동동 물양물 공동체 지역의 빈집 활용 방안'이다. 김준영 교수의 전국의 빈집 발생 양상이라는 주제 특강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 학생이 함께 5개 조로 나눠 해당 지역 빈집 답사 및 실측을 진행했고, 답사내용을 토대로 분석과 활용에 대해 제안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이형민(3년) 학생은 "이번 워크숍이 전주의 한 구체적인 동네의 빈집 발생 상황을 살펴볼 기회였다"며 "빈에 대한 개선안을 일본의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며, 작업을 진행한 것이 매우 흥미로웠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주관한 김준영 교수(건축학과)는 "빈집 문제가 먼저 심화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토요대 학생을 통해 듣고 함께 전주지역의 빈집 문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주민과 축제방문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한풍루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 이백면, 지흥이네 반찬과 협약 체결

남원시 이백면 행정복지센터는 7일 관내 민관협력 활성화 및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지흥이네 반찬(대표 박혜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백면은 면 특화사업 '홀로어르신 행복한 생일밥상' 사업으로 관내 독거노인에게 미역국과 반찬들을 지원하며, 향후 관내 취약계층 발생 시 가정방문을 통해 밑반찬 지원 예정이다.

박혜림 대표는 "이백면과 협약을 맺음으로 취약 가구를 위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다.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형성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동준 이백면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써 소외되는 가구가 없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구축되게끔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캠페인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9월 1~7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똑똑! 건강 제안 30대부터 자기혈관 숫자알기!' 슬로건으로, '자기혈관 숫자(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알기 레드서클(건강혈관) 캠페인'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캠페인에서는 시청과 춘향문화예술화관에서 시민 500여명(30~40대 중점)을 대상으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심방세동 등 무료 측정과 결과상담을 실시하고 레드서클(건강혈관)을 운영하였다.

특히 9월 한달 동안에는 모바일 플랫폼(워크온 어플)을 활용한 '정수수치와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이벤트 제공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남원의료원 연계 무료 합병증 검사 및 선별검사를 통한 상담제공 2차검진을 지원 △심장생생건강교실 등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국가건강검진 연계자 고위험군 대상으로 유선 건강상담 등의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경찰, 전화금융사기 예방 실험 직원에 감사장

장수경찰서(서장 정덕교)는 지난 5일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장수경찰 본청 직원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장수경찰 본청 김성훈 직원은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20분경 현금 1,600만원을 인출하려는 고객의 A씨와 상담하던 중, 고액인출로 사용 출처를 물어보니 그냥 돈만 인출하고자 하는 A씨의 행태가 수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신고와 함께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돈의 사용처를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전화기 확인을 완강히 거부하여 수차례 설득 끝에 확인 결과, 계속 통화상태였고 농업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장수경찰이 A씨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에 통장잔고 1,600만원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확인,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였다.

정덕교 서장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혹시 보이소피싱인가?' 라는 작은 의심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작은 관심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시, 2023년 전 직원 특별민원 대응 교육

남원시는 지난 5일 1층 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 민원과 이용범 사무관을 초청해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전 직원 특별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권익위 특별민원 전문관으로 활동하는 이용범 사무관의 특별민원 관리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특별민원의 특성과 유형, 대응 방안 공무원의 자세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강에서 이 사무관은 특별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다수의 선량한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민원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일반 민원과 달리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평소 주변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며 특별민원인의 상태와 특성을 살펴 가며 응대하는 자세에서 80%는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민원인에게 공감과 경청의 자세로 진정한 있게 소통함으로써 민원인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특별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탄탄한 업무지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평소 본인 업무의 지속적인 연구와 법령·규정 숙지는 필수임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특별민원과 일반민원이 그 유형과 특성이 다르나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마음과 냉정한 머리를 갖고 민원을 처리해야 하며, 민원 떠넘기기와 선입견은 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알림

▲전북대학교총동창회 제39대·40대 회장 이·취임식=일시: 13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전북대학교 내 건지광장 문화루 문의: 전북대 총동창회 사무국(063-270-3641)

본사 내방

▲윤여봉 전라북도경제진흥진흥원장